

# 하나님의 중매

God the Matchmaker

마태복음 19:3-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2월 20일 설교

<sup>3</sup>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sup>4</sup>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sup>5</sup>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sup>6</sup>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sup>7</sup>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sup>8</sup>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sup>9</sup>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 신화 한 자락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주 먼 옛날에는 사람 몸이 공처럼 둥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둥근 몸에 팔이 넷, 다리도 넷, 동그란 머리 하나에 똑같이 생긴 얼굴이 앞뒤 양쪽으로 하나씩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걸어가고 뒤로도 걸어가고 - 뒤에도 얼굴이 있으니 사실 앞뒤가 없는 거지요 - 급할 때는 팔다리 여덟 개를 죽 뺀어 굴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고 힘도 아주 셧고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 자부심이 급기야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신들에게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하늘에서 제우스신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천둥번개를 보내 사람을 다 죽여 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신들에게 제물은 누가 바치겠습니까? 그렇다고 신한테 대드는 걸 가만둘 수도 없고, 하여간 고민을 하다가 제우스신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버릇만 고치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사람을 반으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둥글던 몸을 반으로 쪼개고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만 남겨두면 힘이 약해져서 다시는 신에게 대들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쪼갠 자리가 이 앞입니다. 칼로 두부 자르듯 똑 자른 다음 가족을 잡아당겨 잘린 자리를 덮었는데 그렇게 덮고 마지막 묶은 자리가 배꼽입니다. 그런 다음 얼굴을 백 팔십 도 돌려놓았습니다. 뒤가 앞이 된 거지요. 왜 그렇게 돌려놓았습니까? 찢어진 자리를 늘 내려다보면서 신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찢어놓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바빠졌습니다. 뭐 한다고 바빠졌습니까? 잘려 나간 나머지 반쪽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왜요? 반쪽만 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짝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진 내 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둥켜안습니다. 왜요? 다시 옛날처럼 하나가 되려는 겁니다. 그렇게 잘려나간 내 반쪽을 그리워하면서 그 짝을 되찾아 본디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을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말로 에로스 (erw")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이 뭐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가려는 본능이라 할 수 있겠지요? (플라톤 <향연> (189c-193e).

## 신화의 뜻

실제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만 제가 간단히 추렸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우리 옛 신화도 그렇고 잘 살펴보면 엉터리인 것 같지만 맞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데 신화는 하나였다가 둘로 쪼개졌다 합니다. 그런데 둘이 합쳐 다시 하나가 된다 하는 건 비슷하지요?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벌을 받아 쪼개졌다는 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세기 이 장하고 사람이 죄를 지어 벌을 받은 창세기 삼 장을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알았겠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것저것이 더해져 잡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는 맞는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런 게 뒤섞여 있습니다.

자, 처음 하나였다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잘려 나간 반쪽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하는데 이렇게 처음 나랑 한 몸이었던 반쪽, 그러니까 나하고 다시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할 짝을 영어로 쏘울 메이트 (soul mate)라 합니다. 영혼의 반려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다면 이상형이 되겠습니다. 쏘울 메이트나 이상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본디 하나였기 때문에 나하고는 운명처럼 이어져 있는 사

람,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도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끈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동양에서도 천생배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짝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궁합이라는 말에도 그런 운명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기억에 남았기 때문인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가 짝을 이루는 일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윤회사상하고 섞여서 매번 태어날 때마다 짝을 찾고 또 찾아서 진짜 짝을 만나면 둘이 함께 영원의 세계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생겼습니다. 제 짝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식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평생 한 번 결혼하는 사람보다는 몇 번씩 결혼하는 연예인들이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 이상형을 만났다?

그런 이상형, 또는 쏘울 메이트라는 게 정말 있어서 진짜로 만날 수 있다면 대단한 복이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만났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두 해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마크 샌포드 주지사가 애피alachian 산으로 하이킹을 간다 하고는 사라졌는데 며칠 뒤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애피alachian 산맥이 남미까지 이어져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하이킹을 핑계 삼아 여자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간통이지요. 이 사람 때문에 “애피alachian으로 하이킹을 간다” 하는 말이 간통한다는 뜻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직 애피alachian 산에 못 가 보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영영 못 가 보게 생겼습니다.

이왕 들킨 것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간통녀를 쏘울 메이트라 불렀습니다. 덕분에 이 말도 유명해졌습니다. 간통녀가 내 이상형이고 내 운명이라면 나랑 스무 해 넘게 살면서 아들도 넷이나 낳은 부인은 그럼 뭘니까? 충격을 겹으로 받은 부인은 상담까지 받으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쏘울 메이트 하나 잘못 만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지요. 샌포드는 지난날에도 그 여자하고 남미 바닷가에 나타났다고 신문에 날던데 부인하고 네 아들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형 때문에 가정을 박살낸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커네티컷 살던 안수집사 한 분이 학회에 며칠 갔다 와서는 부인한테 이혼을 해 달라 했습니다. 자기 이상형을 만났다는 겁니다. 애피alachian도 그렇지만 학회에도 함부로 못 가겠지요? 이상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을 해 주었습니다. 부인은 남부끄러워 교회에도 못 나가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셋을 데리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사는 이상형하고 합쳤습니다. 그런데 딱 여섯 달 살아보니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부인한테 다시 갔는데 부인이 처음에는 받아 주었다가 불편해 같이 못 살겠다고 다시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겨난 그 집사는 이 사람하고도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도 살아보던데 지금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은 결혼도 해 보고 간통도 해 보고 재혼도 두어 번 해 보았지만 이상형은 결국 못 찾고 이상형을 만났다는 착각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 이상형은 없다

이상형 따지는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은 대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만 생각합니다. 내 이상형은 열심히 찾으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상형인지 아닌지 그건 신경도 안 씁니다. 물론 신화가 맞다 치면 내 이상형만 찾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이상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상형을 찾는 사람 가운데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좋아 이상형이지 그건 결국 내 욕심이거든요. 신화에서는 둘로 쪼개지기 전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생겼든 못 생겼든 내 이상형은 다 잘생긴 사람입니다. 남자들의 이상형은 김태희, 송혜교, 여자들의 이상형은 원빈, 현빈. 이름에 빈 자가 있긴 하지만 돈은 많아야 됩니다. 나는 성격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이상형은 언제나 많이 가져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이면서 말인즉 사랑이라 합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상형을 찾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형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이상형을 만나고 싶다, 이상형을 만나야지 하고 미래형으로만 말하지 이상형을 만났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끔 심봤다 하는 사람은 있지요. 샌포드나 그 집사님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형은 얼마 못 되어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이상형이더라 하는 과거형이 아니고 이상형이 아니더라 하는 과거형입니다. 그 집사님은 여섯 달 걸렸지요. 샌포드는 아직도 간통녀를 만나고 있지만 이런 건 오래 못 가는 법이라고 제 입으로 말을 했다 합니다. 처음 쏘울 메이트라 할 때랑 느낌이 벌써 많이 다르지요?

이상형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릴 수는 있지만 만나는 순간 아닌 게 이상형입니다. 무지개하고 똑같지요. 짝이 아직 없는 사람이라면 물론 잘 찾아야 됩니다. 한 번 엮이면 다시는 원상태로 못 돌아가니 이상형이든 쏘울 메이트든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찾았다 싶으면 이미 아닙니다. 이상형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상형, 그런 건 없습니다. 쏘울 메이트도 가짜입니다.

## 세상 증조

우리 많이 속았습니다. 이상형이라는 게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런 걸 찾으려고 애들 많이 썼습니다.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순간 불이 붙습니다. 쏘울 메이트라는 게 정말 있구나, 내가 조금 늦게 만났구나, 하고 착각하고는 가정을 깎니다. 깨는 순간 깨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가정을 깎 정도로 확신이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사람도 가정생활에 크고 작은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상형을 못 만나 그렇다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쏘울 메이트가 아닌 사람을 만났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러니 대충 삽니다. 그러다 일이 잘못 되면 운명이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늘을 쿡쿡 찌르는 거지요.

재미로도 이상형이니 쏘울 메이트니 할 일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착각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인생 뿐 아니라 내 아내의 인생, 내 남편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까지 망치게 됩니다. 쏘울 메이트라는 게 정말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별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것에 속아 내 배우자에게서 멀어지고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운명 같은 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와 계셔서 제가 한국 연속극을 같이 좀 보는데 부모도 불륜, 자식도 간통, 이걸 정말 사람 이야기인지 동물의 왕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불편했던 건 이상형이라는 게 마치 있더라도 한 것처럼 속이는 그 속임수였습니다. 주인공 남자의 부인은 성격도 못되고 거짓말도 잘 하는데 그 남자하고 간통을 하는 간통녀는 청순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인공 여자의 남편은 무능력하고 포악한 사람인데 반해 그 여자가 몰래 만나는 남자는 마음도 따뜻하고 지갑도 두툼합니다. 결혼을 잘못했다가 뒤늦게 이상형을 발견했다,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운명처럼 강한 만남 앞에서는 윤리도 예절도 다른 사람이 입을 상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화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도 오염이 됩니다. 샌포드 주지사도 커네티컷의 그 집사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속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오래전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하나님의 증매

성경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너와 내가 좋아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증매를 해 주셨다 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되었다는 말이지요? 운명처럼 만난 것이니 이상형 같기도 하고 쏘울 메이트하고도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처음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갈라져 나간 반쪽,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반쪽이라는 건 애초에 없습니다. 정해진 대상이 만약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대상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 대상을 만나야 하나가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근거는 꼭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서로 보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든 나와 만나 짝을 이룬 사람은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누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릴까, 그건 하나님의 일차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났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남은 아랑곳없이 “내” 이상형만 찾는 이기주의가 여긴 없습니다. 보일 듯 하다가도 막상 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리는 무지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만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실체도 없지만 만나는 그 순간 진짜가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한 번 이루어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실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하나다, 나와 남편은 하나다. 현재형이지요? 시간이 흐르면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이상형 따지는 사람들의 과거는 이상형이 아니라 더러 하는 깨달음이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사이의 세월이 지난 뒤 돌아보아도 분명히 하나였구나 하는 긍정입니다.

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이는 시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 믿음과 경험

사람이 짝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애도 있고 중매도 있고 소개팅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나기도 하고 사교 클럽에서 만나기도 하고 인터넷 중매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 좋은 방법일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중요한 건 꼭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났든 저렇게 만났든 일단 만나 결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뭐가 끝입니까? 결혼을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겁니다.

결혼이 뭔지 세목을 따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만 일단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결혼은 다 중매결혼입니다. 교회에서 하든 절에서 하든 중매 아닌 결혼은 없습니다. 중매가 뭐니까? 나에게 맞는 짝을 찾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중매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나와 엮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만드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몸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연애하고, 내가 소개팅하고, 교회 권사님이 중매를 서고, 또 주례는 목사님이 했지만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를 하나로 엮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이라 했습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 내가 경험하고 판단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거라면 경험과 조금 달라도, 아니 경험과 정반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험만 본다면 연속극이 맞습니다. 결혼해 살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매를 잘 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착각입니다. 신혼 때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경험을 믿다가는 몇 달 못 가서 한숨이 나올 겁니다. 지난 주에 성내지 말자 설교했지만 결혼해 같이 사는 건 성낼 일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돈 때문에 다투고 아이 키우는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경험을 믿다가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짝이 맞나, 하나님이 중매를 잘못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진짜 짝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와장창 소리도 나게 됩니다.

## 사람의 탐심

왜 경험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 살면서 다투는 이유를 가만 따져보면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고 배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하는 충고가 잔소리로 들려 싫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잔소리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이 죄 때문에 믿음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은 안 좋고 남의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탐내면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선을 “한 마리에 얼마”로 팝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걸 사려고 고등어를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크다 싶어 집어 들면 밑에 있는 게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들면 내려놓은 그게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생겼지요. 고등어를 살 때는 밑에 있는 게 집어든 것보다 두 배 이상 커 보이면 바꾸고 안 그러면 바꾸지 마라. 탐심이 우리 눈을 그렇게 굴절시켜 놓았습니다.

영어 속담에도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는 게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잔디는 위에서 내려다보니 빈틈이 다 보이지만 이웃집 잔디는 옆으로 비스듬히 보니 빈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새파랗습니다. 내 아내한테서는 아침마다 입냄새가 나는데 이웃집 여자한테서는 향수 냄새만 납니다. 내 남편은 짜증도 많고 강압적인 때도 있는데 이웃집 남자는 늘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아 보이시네요,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감동마저 받습니다. 지금 내가 이상형이 아닌 사람하고 살아 그렇습니까? 이상형이 다 뭐니까? 내 이상형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지금 내 배우자입니다. 함께 사니 온갖 흠, 온갖 허물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입냄새도 맡고 잔소리도 듣고 다투기도 하는 건데 그걸 정반대로 생각하니 참 한심한 노릇이지요.

## 사람의 완악함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로 물든 내 경험만 고집하는 태도를 주님은 완악한 마음이라 표현하십니다. 완악함은 완고하고 사악한 마음입니다.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배우자의 모든 게 불만이고 그래서 이상형을 못 만났다고 한탄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나가 되었는데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그걸 거꾸로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죄로 물든 완악함입니다.

그런 완악함 때문에, 이상형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내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고 나랑 하나가 된, 나하고 똑같아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대신 경멸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내 배우자하고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면, 드디어 쏘울 메이트를 만났다 착각하고 간통을 하고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남자가 주도하던 세상에서 여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방적인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불쌍히 보셔서 이혼증서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내버리느니 차라리 이혼증서를 써 주어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인간은 그걸 또 남용해 아내를 더 쉽게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죄악을 다 시금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번 결혼하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이유 없이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 영원한 하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에로스의 화살을 맞아 이상형을 만났다는 착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에로스로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셔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에로스는 완전함을 그리워하는 본능이면서도 그 완전함을 영원히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속에 있는 완악함을 버려야 되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고백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또 책임입니다. 이상형이든 쏘울 메이트든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내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누굴 만나든 이상형은 아니니 운명을 탓하며 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그래서 나랑 하나가 되어 다시는 둘로 나눌 수 없게 된 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가 된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경험이 내 믿음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그 경험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배우자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는 그 하나 됨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 책임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그러니 서로 더욱 신뢰하면서 둘 사이에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저 이혼하지 말라는 뜻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현실이 너무 괴로워 믿음을 지탱하기 어려워질 때도 쏘울 메이트를 찾으라는 유혹, 엉뚱한 사람을 보고 쏘울 메이트라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시간을 뛰어넘은 영원한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지만 지금 내 남편, 내 아내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도 함께 받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벧전 3:7).

내 결혼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나를 중매해 주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요, 그렇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은 남편이나 아내의 손을 꼭 잡아 봅시다. 나와 하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매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 기쁨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수경 목사)